

한일 초등 사회과 교과서의 비교

- 역사내용영역을 중심으로 -

김보미

히로시마대 박사과정

I. 들어가며

사회과는 아동들이 자신의 생활 현실을 인식하고 해석·확장하는데 도움을 주며, 그렇게 함으로써 스스로의 관점, 사고방식 및 실천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과이다.

사회과 수업에서 아동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의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현상 및 과정을 이해하도록 안내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학습자·학문·사회의 관계를 들여다보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들 간의 관계 또는 맥락을 파악함으로써 더욱 포괄적인 지식의 습득 및 이해가 가능하며, 이는 책임 있는 행위를 위한 전제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아직까지도 교과서는 사회과 수업에 있어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교과서 의존적 수업을 탈피하려는 많은 모색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당분간 교수·학습의 가장 중심적인 위치에 교과서가 존재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과연 현재의 교과서는 사회과 수업을 위한 여러 가지 단서를 충분히 유의적으로 제공하고 있는가? 본고는 한국과 일본의 교과서, 그 중에서도 역사에 관한 내용들 다루고 있는 부분(한국의 5학년 1, 2학기 사회교과서와 일본의 6학년 사회교과서 상권⁵⁾)의 특징을 비교함으로써, 이 물음에 답하고자 한다.

낯선 무언가를 통해서 익숙한 것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기에, 다양한 나라들의 교과서와 한국 교과서를 비교하는 연구는 꽤 오래전부터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병렬적 비교연구는 새로운 정보의 제공이라는 점만으로도 충분히 유의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교과서 분석을 위하여 사전에 엄밀한 분석 범주를 설정하기 보다는, 일본 교과서 자체의 특성을 서술하고 이를 한국의 교과서와 비교하는 것으로 논의를 이끌어가고자 한다. 교과서 내용체제에 대한 분석적·이론 기술적인 논의로부터의 출발은, 자칫 관찰 대상 교과서의 중요한 실재를 놓쳐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⁶⁾.

5) 본고에서 분석 대상으로 하는 교과서는 두산동아에서 발행한 초등학교 '사회(5-1, 5-2)'와 일본문교출판에서 발행한 '소학사회(6-상)'이다. 지금까지 일본의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에 대한 연구는 주로 동경서적에서 발행된 교과서에 치중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비교대상을 일본문교출판의 교과서로 결정하였다.

6) 독일에서 제안된 교과서 평가 기준의 한 사례(Ackermann, 1992:379-380)는 다음과 같다(허영식, 2000).

① 교과서 유형 : 길잡이 또는 입문서의 성격을 가진 교본, 교본 및 학습서, 학습서, 자료 모음, 학년별 또는 학교 수준별 ② 외관 : 제본(표지), 권두 삽화, 활자면, 수업 단원의 짜임새, 삽화(사진, 그림, 풍자화 등) 및 본문과의 관계, 목차(사례), 색인 ③ 교수방법 측면 : 언어의 이해 가능성, 목표의 투명성, 학습 단계의 구분, 학

그런 점에서 가장 먼저, 일본의 교과서 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교과서는 한 사회의 전통과 문화 수준, 가치관과 생활양식을 반영하는 문화적 산물인 만큼, 구체적인 교과서의 분석 이전에 교과서의 맥락에 대한 어느 정도의 선행적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교과서의 형식과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적 측면을 간단히 살펴보고, 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과서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볼 것이다.

II. 교과서가 나오기 까지 - ‘소학사회’의 경우

1. 제도적 측면

일본 또한, 제 2차 세계대전 종료 전까지 교과서는 일반적으로 정부에 의해 작성되었다. 현재 일본의 교과서 검정제도는 1947년에 제정된 학교교육법에 기초한 것이다. 이 제도 하에서는 민간의 출판사가 교과서를 집필하고, 공적인 검정과 승인을 받기위해 문부과학성에 제출한다. 교과서 집필이나 검정은 몇 가지 과정을 거친다.

가장 먼저 출판사는 연구자와 교사를 모아 팀을 짜고, 팀 안에서 내용이나 편집방침에 관한 논의를 해가며 교과서를 집필하게 된다. 완성된 교과서 견본은 문부과학성에 제출하게 되는데, 문부성의 ‘교과용도서검정조사심의회’는 교과용도서 검정기준을 기반으로, 교과서 견본을 심의한다. 이 과정이 끝나면, 문부성은 심의회의 제언을 바탕으로 출판사에 교과서를 다시 검토하도록 전달한다. 그 후 출판사가 수정본을 제출하고 이에 대해 심의회에서도 충분히 수정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는 경우, 적정함이라는 답신을 문부성에 보내고 문부성은 이에 의거하여 검정교과서의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이러한 과정은 1989년에 상당히 간략화되었기 때문에, 이후 출판사가 교과서를 작성할 때 조금 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교과서에 대해 수정 요구를 받더라도, 검정자체가 불합격이 되는 일은 극히 드물어졌기 때문이다.⁷⁾

<표 1> 일본의 교과서 제작부터 사용까지 흐름

시기	주요업무	대상
1년차(4월~이듬해 3월)	편집	교과서 발행자
2년차(4월~이듬해 3월)	검정	문부과학대신
3년차(4월~이듬해 3월)	채택 및 제조·공급	공립학교 - 소속 지역 교육위원회 국·사립학교 - 교장 교과서 발행자, 공급업자
4년차(4월~이듬해 3월)	사용	학생

문부과학성에 의해 인가받은 교과서는 각 지역(市, 町, 村)에서 진열함으로써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교과서 사용에 관한 최종결정권은 각 지역 교육위원회(공립학교) 및 학교장(국·사립학교)에게 위임되어 있다. 사용할 교과서를 결정한 후에는 출판사에 주문을 하고, 그 때부터 인쇄와 배송 작업이

습 내용의 구조화, 사회 정치적 문제의 적합한 환원, 제공된 방법의 폭, 직관성(직접 관찰 가능성), 평가(학습 통제) ④ 사회 정치적 배경 : 사회에 대한 관념(사회상)

7) 일본의 외무성 홈페이지(<http://www.mofa.go.jp/mofaj/area/taisen/kentei.html>) 에서는 일본의 교과서 검정 제도에 관한 간략한 정보를 영·일본어·한국어·중국어로 제공하고 있음.

개시된다. 이 과정 전체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과서 작성 프로젝트에서는 집필팀이 결성된 뒤, 교과서가 교실에서 실제로 사용되기까지 최소 만 3~4년 정도가 걸린다.

교과서 발행자가 편집한 교과서가 검정, 채택 등의 절차를 거쳐 학생들이 사용하기까지의 경위는 대략 다음과 같다.

<표 2> 일본의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채택 주기⁸⁾

(◎:검정, △:채택, ○:사용개시)

	03 (평성 15년)	04	05	06	07 (평성 19년)	08	09 (평성 21년)	10	11	12	13 (평성 25년)	14	15
검정	◎				◎		◎				◎		
채택		△				△		△				△	
사용			○				○		○				○

① 편집 : 현재의 교과서제도는 민간 교과서 발행자에 의한 교과서의 저작 및 편집이 기본이 된다. 각 발행자는 학습지도요령, 교과용 도서검정기준 등을 기초로 창의적 연구를 부가한 도서를 제작하여 검정을 신청한다.

② 검정 : 도서는 문부과학대신의 검정을 거쳐 비로소 학교에서 교과서로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발행자가 검정을 신청하면, 그 도서는 문부과학성의 교과서 조사관의 조사에 회부되는 동시에, 문부과학대신의 자문기관인 교과용도서 검정조사심의회로부터 자문을 받는다. 심의회에서 답신을 하게 되면 문부과학대신은 이 답신에 근거하여 검정을 실시한다. 교과서로서 적절한지의 여부에 대한 심사는 교과용도서 검정기준에 따라 이루어진다.

③ 채택 : 검정완료 된 교과서는, 한 과목에도 여러 교과서가 존재하게 되므로 그 가운데 학교에서 사용할 한 가지 종류의 교과서를 결정(채택)할 필요가 있다. 채택의 권한은, 공립학교의 경우 소속 지역의 교육 위원회에 국·사립학교의 경우 교장에게 있다. 각 학교의 채택과정이 끝나면, 교과서의 수요량을 문부과학 대신에게 보고하게 된다.

④ 발행(제조·공급) 및 사용 : 문부과학대신은 보고된 교과서의 수요량 집계결과에 근거하여 각 발행자에게 발행해야 할 교과서의 종류 및 부수를 지시한다. 이 지시를 승낙한 발행자는 교과서를 제조·공급업 자에게 의뢰하여 각 학교에 공급한다.

⑤ 교과서의 무상공급 : 일본 내의 국·공·사립 의무교육제 학교에서 사용되는 교과서는 전교생에게 국가가 부담하여 무상으로 공급된다.

2. 집필자의 입장 및 고민

현재 일본에서 사용 중인 소학교 사회교과서는 2008년(평성 20년) 고시된 학습지도요령을 근거로 2010년에 채택 완료된 책들이다. 정확한 통계조사가 실시된 적은 없으나, 동경서적(東京書籍)의 新しい社会와

8) http://www.mext.go.jp/a_menu/shotou/kyoukasho/kentei/kekka.htm 일본 문부과학성 홈페이지 교과서 검정결과 개요에 관한 자료(홈페이지에는 서력이 아닌 일본연호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병기함)

일본문교출판(日本文教出版)의 小学社会와 小学校の社会, 3종의 교과서가 일본 전국 초등학교의 85% 이상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특설이다. 그 중 일본문교출판에서 발행하는 초등학교교과서 '小学社会' 집필진의 한 사람인 이케노 노리오(池野 範男)는 2010년 검정을 마치고, 현재 사용 중인 교과서 제작과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⁹⁾.

“초등학교 사회과에서 다루어지는 역사는 역사학이 아닌 사회과 안에서의 역사이기 때문에 '역사를 아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학습지도요령에서 역사인물 등을 제시하고 있는 이유도, 그들을 통하여 해당 시대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가령, 무사가 지배하던 사회는 어떠한 특징을 드러내는지 인물들을 통해서 알아보는 것처럼.. 그렇지만 교과서 제작회사의 경우 '팔기 위해서 현장의 요구를 중시할 수밖에 없는데, 현장에서는 아직도 역사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 다루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다보니 결국 중학교와 똑같은 교과서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통사적 내용배열이라는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사실 시대의 특징을 알고 오늘날과 비교해본다고 하면.. 꼭 연대기 순으로 내용 배열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쇼토쿠(성덕)태자와 사카모토 료마의 비교를 통해서 두 시대를 살펴볼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을 비롯해서 교과서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구매권을 가지고 있다보니 출판사는 그들의 요구에 맞출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 결과가 소학교의 특성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재미없는 교과서가 되어버린 거다.”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지만, 학교급별 특성이 제대로 드러날 수 있어야 진짜 사회과 교과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특히 역사의 경우 소학교 단계의 사회과에서 역사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지금 이 상태로는 초중고에서 통사의 반복 또 반복이 되어버리니, 아이들이 흥미를 잃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하다.”

일본에서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다음번 검정은 2013년(채택은 2014년, 사용개시는 2015년)에 이루어진다. 물론 기본적으로 2008년판 학습지도요령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교과서 내용이나 구성 자체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계속되는 교과서 검정 및 채택의 과정에서 어떠한 변화가 필요한지에 관한 노학자의 의견은 확고한 편이다. 이에, 이상의 집필진으로서의 회고와 더불어 앞으로 사회과 교과서를 위해 필요한 고민들에 관한 의견도 들어보았다.

“개인적으로 소학교 사회과에 관해 고민하는 부분이 몇 가지 있다. 첫 번째는 무엇을 다루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이것은 사회과 목표와도 관련이 되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역사학인가 사회과에서의 역사인가'의 문제는 아주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온 것이지만, 이 두 입장의 차이에 의해 교육과정 구성 자체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거다. 물론 나는 사회과에서의 역사라는 입장을 지향하는 교과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제대로 표현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입장 충돌도 당연히 발생 하는 거고..”

9) 2012년 9월 24일 1시간 정도에 걸친 인터뷰 내용을 정리한 것.

“두 번째는 구성적 측면에 관한 것이다. 사회과에서의 역사를 표상하는 경우, 역사를 통한 현재의 이해는 필수적인 것이다. 따라서 아동들의 생활과 관련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의 통사적 전개역사는 3·5학년의 사회과와는 전혀 별개로 푼 떨어져 있는 느낌이 강하다. 현재 사회과의 구성은 신변지역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의 사회를 이해하는 과정 중에 갑자기 옛날 옛날에 라는 식으로 역사가 푼 튀어 나오는 거다. 연대기적 접근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거야말로 소학교 전체 과정을 보았을 때 그러한 시대순과는 전혀 별개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가? 당연히 흐름이 푼 끊기는 것은 물론이고 사실 위주로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아동들의 현재와 연결하여 생각하는 활동과 같은 것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결국 교과서의 목표설정과 교과서 구성은 같이 고민해서 개선해 나갈 문제라고 생각 한다.”

“방법적 측면도 중요한 고민거리이다. 현재 교과서는 '조사학습' 이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아니 조사학습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조사해 보자고 해놓은 후의 답까지 다 써있다는 거다. 교과서를 활용하도록 맡겨 놓지를 못한다고 할까.. 현재와 같은 조사학습은 거의 글씨연습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역사를 통한 사고는 거의 이루어질 수 없다. 무엇을 했는가라는 사실 차원의 조사는 내용만 잔뜩 어딘가에서 찾아 베껴놓고 있는 것인데, 붙여넣기 식의 과정을 통해서 어떤 사회를 구성하면 좋을지에 관한 고민이 과연 이루어지겠는가.. 교과서에 실려 있는 사료차원의 문제도 푼 것이다. 현재 교과서에 등장하는 사료는 대부분 그림(사진)의 형태인데, 아동의 사고를 촉진할 수 있는 자료로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상으로 일본 사회과 교과서가 나오기까지의 흐름을 살펴보고, 집필진의 한사람이 현 교과서에 대하여 품고 있는 생각과 다양한 고민을 간단히 정리해 보았다. 인터뷰 내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교과서는 타협의 산물'이라는 표현은 비단 한국에만 적용되는 것은 레토릭은 아닌 듯하다. 교과서에는 집필진의 의도가 절반도 반영되지 않으며,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결과물로 탄생되는 것이다. 교과서 제작에 관한 이러한 상황은 한국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비록 제도적 측면은 여러 부분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교과서를 구성하는 과정 및 좋은 교과서를 위해 고민하는 내용은 양측 모두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과정을 통해 탄생한 양국의 교과서는 어떠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 사회교과서 자체의 특징을 비교해 보았다.

III. 사실(史實)에 다가서는 방식

사회과는 아동들이 그들 자신의 생활현실을 탐구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여기서 생활현실이라는 개념은 아동이 이미 관계를 맺고 있거나, 지금 또는 앞으로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들과 다른 생물, 모든 사물과 사상(事象)의 총체를 가리킨다. 사회과에서의 역사 또한 이와 같은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하기에, 아동은 역사적 사실 그 자체를 아는 것이 아니라 사실에 대한 역사적, 사회적 해석을 통해 자신들의 현실에 투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은 물론 일본의 현 사회과 교과서는 기본적으로 연대기순의 통사적 접근(1)을 통하여 역사를

10) 앞서 필자와의 인터뷰에서도 언급된 내용이지만, 일본의 경우 학습지도요령에서는 '각 시대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두 교과서 모두, 구석기시대부터 현재에 이르는 역사의 흐름 가운데 교과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집단은 지배계층이며, 인물의 경우 해당 시대의 지배자 및 유명한 (정치인 겸) 지식인이다. 물론 '사실(史實)'을 근거로 교과서를 구성하다보니, 이러한 결과는 옹당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여러 상황적 문제로 인하여, 연대기적 사실(史實)중심의 교과서를 만들 수밖에 없는 제약이 존재하더라도, 구성과정에서 아동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한 공리는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교과서에서 내용을 전개하는 흐름을 비교해볼 때, 아동들에게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한 노력 그리고 사회과 안에서의 역사로서 다가가기 위한 노력의 측면은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이고 있을까?

한국 교과서에서는 '이야기를 삽입함으로서 여러 에피소드를 통해 각 시대의 단상에 접근하고자 하는 노력을 엿볼 수 있다. '이차돈의 순교 이야기'나 '손병의 재판 이야기'처럼 교과서 지문에 비하여 흥미롭고 인상적인 이야기를 활용함으로서 아동으로 하여금 그 시대 배경의 이해를 심화할 수 있는 구성을 피한 것이다. 그러나 이때 제시되고 있는 각 시대의 에피소드는 주제나 인물 선택 등의 차원에서 이를 꿰뚫는 공통의 흐름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표 4> 초등 사회교과서의 내용구성 방식

구성	사회(두산동아)	비고	소학사회(일본문교출판)	비고
도입	단원도입	사진, 삽화의 제시	나의 질문 학습방법, 조사방법코너	사진, 삽화에 관한 궁금증 제기
전개	주제학습 ① 주제명, 도입 글 ② 주제학습을 위한 질문 ③ 차시별 소재목, 내용 ④ 토픽(읽을거리) ⑤ 활동 ⑥ 주제정리	1, 2학기 교과서가 거의 동일한 구성	① 해보기 - 방문해보기 - 조사할 테마 정하기 - 조사해보기 - 테마를 넓히기 - 정리하여 발표하기 ② 자료로부터 생각하기 ③ 나의 관점, 생각	①, ②, ③은 꼭 짜인 틀이 라기보다, 융 통성 있는 학 습과정의 성격 이 강함
정리	단원정리	활동중심 (의사결정, 문제해결, 탐구 등)	확인하기 점프 업	

일본 교과서의 경우 '이야기'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지는 않지만, 교과서 구석구석에서 역사의 짙막한 에피소드가 계속적으로 소개되고 있다는 점은 유사하다. 또한 이와 동시에 일본 교과서 구성에서 눈여겨 볼만한 점은 각 단원에 거의 반드시 등장하는 것이 해당 시대의 음식이다. 물론 '복원'이라는 꼬리말이 붙기는 하지만, 평민이나 귀족의 상차림 혹은 전쟁시절의 상차림 등 그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이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음식사진만 비교해 보아도 시대의 흐름을 알 수 있을 정도로 하나의 동일한 주제를 읽어낼 수 있도록 구성되어있다. 이와 비교하여 한국 교과서는 1, 2학기를 통틀어 단 한 장의 음식사진이 실려 있다. 그것도 신분에 따른 상차림이거나 전쟁과 같은 시대적 상황의 영향을 받은 음식의 사진이 아닌 전통음식의 소개 차원에서 등장하고 있다.

<표 5> 사회교과서에서 생활소재를 다루는 방식의 사례

사회(두산동아)	소학사회(일본문교출판)
 <p><사회 p.123 전통음식></p>	<p><p.9 수렵생활기의 식사> <p.11 농업 생활기의 식사> <p.27 귀족의 식사, 평민의 식사></p> <p><p.48 농민의 식사, 무사의 식사> <p.65 조선통신사 환영 음식></p>
 <p><사회과탐구 p.94 전통음식></p>	<p><p.77 식문화 변천: 농촌음식과 수도의 판매음식> <p.113 전시 농산물가격 및 식사풍경></p>
 <p><p.121 전시 먹었던 수제비></p>	 <p><p.133 전시의 급식></p>

그렇다고 해서 한국은 역사적 사실을 중시하고, 일본은 생활사적 사례를 중시하여 교과서를 제작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학습지도요령에서도 아동으로 하여금 시대의 사실을 많이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 특징을 파악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어떠한 상징물의 매개를 통하여 그 시대의 이미지를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이 이와 같은 결과로 드러난 것이 아닌가하는 추측은 가능할 것이다.

IV. 자료 활용 측면에서 바라보기

두 나라 모두, 사회과 교과서는 내용이 많고 어렵다는 불만은 교실로부터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교과서 구성에 반드시 고려되는 사항 중 한 가지이다. 이에 본고는 교과서의 구성적 측면이 수업의 실제에서 활용될 때의 특징을 중심으로 양국 교과서를 비교해 보았다.

앞서 제시된 <표 4>를 참고로 살펴보면 한국 교과서는 도입-전개-정리라는 하나의 틀 안에서 본문의 서술내용만 변경된 채 5학년 1년 동안 반복된다는 느낌이 강하다. 이에 비해 일본 교과서는 굉장히 느슨한 구성을 취하고 있으며, 아동에게 주어지는 활동 자체도 수적으로 굉장히 적은 편이다. 이에 관한 내용을 교과서의 자료 활용 측면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① 연표 및 지도의 활용

역사학습에 있어 연표는 필수 학습요소 중 한 가지이다. 그러나 시간의 상대적 길이를 비교하여 물리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아동들에게는 그리 독특한 과정이 아니다. 따라서 두 교과서 모두 조금 더 쉽고 친숙하게 연표를 설명하고, 수업 과정에서 아동 스스로 연표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자료 활용 측면에서 연표를 접근하는 과정은 조금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일본의 경우 교과서 결표지의 뒷면에 연표와 함께 각 시대의 유적위치가 표기된 지도를 병기함으로써, 어느 내용에서도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과서가 제작되었다. 반면, 한국의 경우 각 단원의 첫머리에 해당 시대의 대표적 사건을 정리한 연표를 제시함으로써 교과서 전체에서 활용하는 자료로서가 아닌, 각 시대의 대표 사건을 소개·정리하는 자료의 인상이 강하다.

반면 양국 교과서 모두 과거생활의 시간적 축과 공간적 축을 함께 논하기 위한 필수 요소로서 다양한 지도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그림 1> '소학사회(일본문교출판)'에서의 연표 활용



② 소주제별 활동

기본적으로 사회교과서의 각 단원에서 다루어지는 소주제는 한 단원을 관통하는 큰 주제를 통해 최종 정리가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한국 사회교과서의 경우 소주제별 정리활동이 제공되고, 대단원의 마지막 부분에도 최종적인 정리활동이 제시되나, 일본의 경우 주제별 정리활동은 등장하지 않으며, 삽화와 말 주머니를 통해 핵심개념을 정리하고, 대단원의 마지막에만 정리활동이 제시된다. 즉 하나의 대단원에 한국의 경우 5+a개의 활동을, 일본은 1+a개의 활동을 제시하고 있으며, 한국 사회교과서의 활동이 보다 난이도가 높은 편이다.

③ 교과서와 보조교과서

사회교과서가 한 권인 일본에 비하여 한국은 사회교과서와 보조교과서인 사회과 탐구까지 포함하면, 동일 주제를 다루는 텍스트의 제공량이 상당히 많은 편이다. 물론 보조교과서의 경우 어디까지나 '참고'를 위한 취지로 구성되었으나, 현장에서는 '학습'해야 하는 또 하나의 교과서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과 수업은 늘 바쁘다. 한국의 경우처럼 다양한 자료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아동들에게 책의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또 하나의 사회교과서가 되어 버리는 것과, 일본의 경우처럼 교사가 활용하는 지도자료(지도서, 시디롬)를 풍부하게 제작하는 것 사이의 문제는 앞으로도 많은 고민과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V. 나오며

한 교과에서 무엇을 가르치며, 어떤 단계에서 가르칠 것인가와 관련된 결정, 즉 교육내용의 범위와 계열화 문제는 주로 교육과정 단계에서 확정된다. 교과서를 집필 할 때에는 이러한 교육과정의 내용과 의미를 상세화 하고 그것을 창의적으로 담아내는 과정이 요구된다(이혁규, 1998:85).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제작된 교과서가 사회과 수업을 위한 여러 가지 단서를 충분히 유의적으로 제공하고 있는가라는 물음에 답하기 위해, 역사내용영역을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의 교과서를 비교해 보았다.

그 과정에서 양국 교과서가 사실(史實)을 다루는 방식 및 자료 활용 측면의 여러 가지 참고사항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최종적으로는, 제작이 끝난 교과서의 비교연구를 통한 정보도 필요하지만, 교과서 제작에 관한 고민과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교과의 출발에 얽힌 사연만큼이나 한국과 일본의 사회과는 닮은 점이 많다. 물론 가깝고도 먼 나라라는 상투적인 구호만큼이나 상호간에 사회과 교육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렇지만 미국 사회과의 영향을 강력하게 받고 있는 가운데서도 한국과 일본에서 발전시켜온 양국 나름의 사회과가 지닌 특성을 비교하는 일은, 장점의 도입을 위해서도 문제점의 발견을 위해서도 필요한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축적된 정보를 바탕으로 건전한 논의를 거듭해 나감으로써, 양국 모두 교과서를 포함한 교과교육 전반에 걸친 긍정적인 지향점을 도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참고 문헌 >

- 교육과학기술부(2008),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사회편)*, 한솔사.
- 한국교원대학교 국정도서사회편찬위원회(2011), *사회 5-1*, 두산동아.
- 한국교원대학교 국정도서사회편찬위원회(2011), *사회과 탐구 5-1*, 두산동아.
- 한국교원대학교 국정도서사회편찬위원회(2011), *사회 5-2*, 두산동아.
- 한국교원대학교 국정도서사회편찬위원회(2011), *사회과 탐구 5-2*, 두산동아.
- 문부과학성(2008), *소학교 학습지도요령*.
- 문부과학성(2008), *소학교 학습지도요령해설(사회편)*.
- 동경서적(2010), *新しい社会*, 6-上.
- 일본문교출판(2010), *小学社会*, 6-上.
- 일본문교출판(2010), *日本の歩み(小学校の社会)*, 6-上.
- 이혁규(1998), 미국 초등사회과 교과서의 구성체계와 내용 분석, 제 7차 사회과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개발 방향 세미나, pp.81-106.
- 조용채(2001), 제 6, 7차 교육과정 '사회' 교과서의 비교분석 - 6학년 역사영역을 중심으로 -, *초등사회과 교육*, 제13집, pp.171-189.
- 하경수(2006), 한국·프랑스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비교 연구-역사교육 영역을 중심으로, *사회과교육연구* 13(1), pp.99-120.
- 허영식(2000), 독일 초등학교 교과서의 내용 제시 방식, 제 7차 사회과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개발 방향 세미나, pp.125-161.